12-24
2012.5.24

현안과 과제

유럽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현대경제연구원

< 요 약 >

유럽 경제의 불안 증폭

-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가능성 대두, 스페인 뱅크런 위기 우려 등으로 유럽 경제에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불안감 확산
- 신용평가사들은 유럽 주요국의 신용등급을 경쟁적으로 하향조정중

유럽 경제 침체(유럽 수입 수요 감소)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- EU의 경제 침체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는 국내 수출 위축으로 연결

< EU의 수입감소율에 따른 한국의 對 EU 직·간접 수출감소분 추정 >

대 EU 수출	국내 수출 감소분	
	EU의 수입 20% 감소시	EU의 수입 30% 감소시
직접수출[A]	△111.5억 달러	△167.2억 달러
간접수출(우회수출)[B]	△27.1억 달러	△40.7억 달러
직간접수출 (A+B)	△138.6억 달러	△207.9억 달러

- 타격이 심한 업종은 '조선' / IT, 자동차, 기계 등도 부정적 영향

< 주요 수출산업별 EU수출/총수출 및 EU수출/생산 비중 >

	EU수출/총수출	EU수출/생산
화 학	4.0%	1.2%
철 강	6.9%	1.1%
기 계	10.0%	3.3%
자동차	12.8%	4.8%
I T	7.6%	4.9%
조 선	23.1%	19.7%

시 사 점

첫째, 유럽 발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

둘째, 수출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적극적 내수 활성화 정책 고려

셋째, 교역 대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

1. 유럽 경제의 불안 증폭

○ 최근 유럽 경제의 리스크 확산 과정

- **(그리스 디폴트 우려) 1차 총선 실패 등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그리스의 디폴트(채무불이행) 및 유로존 탈퇴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**
  - · EU · IMF는 그리스에 2010년 1차 구제금융 지원액 1,100억 유로에 이어 2011년 2차로 1,30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을 합의하는 등 2년간 그리스 구제를 위한 다각적 대책이 마련
  - · 그러나 2012년 5월 총선에서 연립정부 구성 실패로 인해 6월 17일 2차 총선 결과에 따라 향후 그리스의 정책 방향 및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
  - · 만약 차기 그리스 정부가 구제금융 대가로 합의한 긴축조건에 반대하며 재협상을 선언할 경우, EU·IMF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디폴트 가능성 상승

- **(스페인 뱅크런 위기 가속화) 스페인 정부는 부실은행 '방키아(Bankia)'를 국유화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뱅크런 위험이 심화**
  - · 2012년 5월 스페인 정부는 자산규모 업계 3위인 부실은행 '방키아'에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고 향후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영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후 약 일주일간 10억 유로가 넘는 예금이 인출
  - · 2012년 5월 19일 스페인 중앙은행은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전체 여신의 8.37%로 증가하여 1994년 이후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

- **(유럽 각국의 신용등급 하락)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**
  - · 2012년 4월 26일 S&P는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+(안정적)로 하향조정하면서 장기 등급 전망은 '부정적'이라고 밝힘
  - · 5월 17일 Fitch는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CC(투자부적격)으로 하향 조정하면서,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 전 유로존 회원국을 '부정적 관찰대상'에 놓고 등급 강등을 검토할 것임을 밝힘
  - · 5월 17일 Moody's는 스페인의 16개 은행과 4개 지방정부 신용등급을 강등

< 유럽 각국의 신용등급 변화(2012년) >

시기	내 용
12. 1.13	- S&P, 유럽 9개국 신용등급 강등 (프랑스, 이탈리아, 오스트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몰타, 슬로베니아, 슬로바키아, 키프로스)
12. 1.27	- Fitch, 유럽 5개국 신용등급 강등 (스페인, 벨기에, 이탈리아, 슬로베니아, 사이프러스)
12. 2.13	- Moody's, 유럽 6개국 신용등급 강등 (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몰타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)
12. 4.26	- S&P,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
12. 5.14	- Moody's, 이탈리아 26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
12. 5.17~18	- Fitch,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및 5개 은행 신용등급 강등
12. 5.17	- Moody's, 스페인 16개 은행과 4개 지방정부 신용등급 강등

자료: 각 신용평가사, 현대경제연구원 정리.

○ 유럽 경제의 침체 가능성

- IMF는 지난 4월 전망에서 2011년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가 최근에 들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

· 이는 ECB의 LTRO(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, 장기대출 프로그램),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결정 등으로 유로 지역의 위기 우려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

- 그러나 유로 지역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 지속, 재정긴축 등으로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2012년 성장률은 -0.3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
- 특히, 유로 지역의 하방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지역에서의 금융 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 재정-금융 부문간 악순환이 심화되어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함

· IMF는 만약 이러한 비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12~13년간 세계 경제성장률은 IMF가 전망한 성장률보다 2%p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

· 특히 유로존은 제시된 성장률보다 3.5%p 추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함

< IMF의 주요 지역 및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(2012년 4월 전망) >

(%)

	2010	2011	2012(E)			
			'11.6월	'11.9월	'12.1월	'12.4월
세계 경제성장률	**5.3**	**3.9**	**4.5**	**4.0**	**3.3**	**3.5**
선진국	**3.2**	**1.6**	**2.6**	**1.9**	**1.2**	**1.4**
미 국	3.0	1.7	2.7	1.8	1.8	2.1
유로지역	1.9	1.4	1.7	1.1	△0.5	△0.3
일 본	4.4	△0.7	2.9	2.3	1.7	2.0
개발도상국	**7.5**	**6.2**	**6.4**	**6.1**	**5.4**	**5.7**
중 국	10.4	9.2	9.5	9.0	8.2	8.2
러 시 아	4.3	4.3	4.5	4.1	3.3	4.0
브 라 질	7.5	2.7	3.6	3.6	3.0	3.0
인 도	10.6	7.2	7.8	7.5	7.0	6.9
세계 교역량증가율	**12.9**	**5.8**	**6.7**	**5.8**	**3.8**	**4.0**

자료: IMF「World Economic Outlook」.
주: 2012년의 각 열 구분은 전망 시점별.

2. 유럽 경제 침체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

○ EU 수입 감소시 국내 수출 위축 효과 추정

- **(가정) EU의 연간 수입 감소폭을 기준으로 ① 수입증감률 △20%(2009년 美 서브프라임 사태시), ② 수입증감률 △30%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**

① **EU의 연간 총수입증감률 △20% 시나리오: 2009년 수준의 수입 감소율을 상정**한 것으로 당시 경제 침체의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시장임
참고로 2009년 연간 기준으로 EU의 수입증감률은 △20.2%, 해당 연도의 한국의 對 EU 수출증감률은 △20.7%를 기록

② **EU의 연간 총수입증감률 △30% 시나리오: 현재의 유럽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**를 가정한 것으로 위기의 진앙지가 유럽이기 때문에 수입 감소폭은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가정
참고로 월간 기준으로 2009년 4월 EU의 수입 감소율은 약 △27%에 이른 경험이 있음

- **(한국의 EU 시장에 대한 직·간접적 수출 규모 추산) 2011년 한국의 대 EU 수출은 557.3억 달러, 그러나 주요국을 경유한 간접 수출(우회 수출)까지 합하면 692.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**
  - 2011년 한 해 한국의 대 EU 직접 수출액은 557.3억 달러
  - 또한 EU의 주요 수입 상대국인 미국, 중국, 일본, ASEAN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은 135.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  - 이에 따라 한국의 EU에 대한 직·간접 총 수출은 692.9억 달러로 추정

- **(EU 수입 감소에 따른 한국 수출 감소 영향 추정) EU의 수입증가율이 '20% 감소'할 경우와 '30% 감소'할 경우, 한국의 총수출 감소분은 각각 '138.6'억 달러 및 '207.9'억 달러로 추정**
  - **EU 수입 감소율 20%시** : 직접 수출 감소분은 111.5억 달러, 우회 수출 감소분은 27.1억 달러로 총 138.6억 달러 수출 감소
  - **EU 수입 감소율 30%시** : 직접 수출 감소분은 167.2억 달러, 우회 수출 감소분은 40.7억 달러로 총 207.9억 달러 수출 감소

< EU의 수입감소율에 따른 한국의 대 EU 직간접 수출 감소 효과 추정 >

(단위: 억 달러)

	2011년 수출액	국내 수출 감소분	
		EU의 수입 20% 감소시	EU의 수입 30% 감소시
대 EU 직접수출[A]	557.3	△111.5	△167.2
간접수출(우회수출)[B]	135.7	△27.1	△40.7
직간접수출 (A+B)	692.9	△138.6	△207.9

자료: 한국무역협회, UNCOMTRADE, ASEAN 통계 등을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.
주: 국별 수출의 HIY VS 비중, 해당국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산 제품 시장점유율, 해당국에 대한 한국의 원자재·자본재 수출액 등을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.

○ EU 경제 침체시 주력 수출 산업별 영향(현재 산업별 EU 수출 의존도)

- **(총수출 시장 의존도)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(85.2%), IT(65.0%) 등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**
  - 다음으로 자동차(37.9%), 기계(32.7%), 화학(30.9%) 등의 순이며 철강(15.4%)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출 비중을 보이고 있음
  - 산업별 수출시장 의존도 = $\frac{\text{총수출}}{\text{생산}}$

- **(EU 수출 시장 의존도) 우리 주력 수출산업들중 조선(19.7%), IT(4.9%), 자동차(4.8%) 등이 EU 수출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**
  - 반면 철강(1.1%), 화학(1.2%) 등은 상대적으로 EU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  - 산업별 EU 수출시장 의존도 = $\frac{\text{총수출}}{\text{생산}} \times \frac{EU\text{수출}}{\text{총수출}} = \frac{EU\text{수출}}{\text{생산}}$

- **EU에 대한 산업별 수출시장 의존도를 감안할 경우,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은 '조선' 업이며, IT, 자동차, 기계 등의 업종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됨**
  - 한편, 화학, 철강 등 기초 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 침체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

< 산업별 수출/생산 및 OECD수출/생산 비중 >

	총수출/생산[A] (2009년)	EU수출/총수출[B] (2011년)	EU수출/생산(A×B)
화 학	30.9%	4.0%	1.2%
철 강	15.4%	6.9%	1.1%
기 계	32.7%	10.0%	3.3%
자동차	37.9%	12.8%	4.8%
I T	65.0%	7.6%	4.9%
조 선	85.2%	23.1%	19.7%

자료: UN comtrade, 통계청, 해외건설협회, 한국은행,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.

3. 시사점

첫째, 유럽 발 경제 충격에 따른 수출 경기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.

- 유럽 위기의 지속은 유럽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용 불안을 유발하고 이는 전반적인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

- 한국의 입장에서 이미 대 중국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, 유럽 수출 침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수출 경기의 경착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

-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수출 업종별 민관 공조의 대응 전략 마련과 주요 수출국의 시장 수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

둘째, 수출 경기 침체를 보완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.

-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주력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감면, 금융 지원 확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

- 특히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지속 등을 통해 실물 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예상되는 기업 경제 심리의 급랭 현상을 방지해야 할 것임

셋째, 교역 대상국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이 요구된다.

-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기 발효된 한-EU FTA 및 한-미 FTA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수출 경기의 과도한 침체를 방어해야 할 것임

- 한편 상대적으로 아직 호조를 보이는 중동, 중남미 등의 비 주력 교역 대상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수출 진작 노력도 필요함 HRI

주 원 수석연구위원 (juwon@hri.co.kr, 2072-6235)
백다미 연구원 (dm100@hri.co.kr, 2072-6239)